

# 타이어 3사, 고인치·EV 수요 타고 ‘관세 리스크’ 돌파

3사 합산 매출 18조2506억 추정  
한국타이어 ‘매출 10조’ 고지 넘겨  
넥센 체코공장 증설 등 물량 반영  
금호 광주공장 화재 여파 이익 둔화  
해외 생산·증설로 대미관세 분산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국내 타이어업계  
계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금호·넥센타이어등 국내타이어  
3사는 지난해 고인차·전기차 타이어 등  
고수익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4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영  
실적을 발표한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연  
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0  
조31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창사 이래  
첫 10조원 돌파로 영업이익은 1조6843  
억원, 영업이익률은 16.3%를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세계 경제의 불  
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신차용 및 교체  
용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인차  
타이어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누적 기준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  
치 이상 고인차 타이어 판매 비중은  
47.8%,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타이어  
매출액 중 전기차타이어 비중은 27%로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전경.

집계됐다.

또 포르쉐, BMW, 샤오미, 루시드 모  
터스, 쿠팡, 기아 등 브랜드 파트너십  
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 현재 40여개 브랜  
드, 300여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  
급하며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과 품질경  
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넥센타이어도 지난해 매출액 3조1896  
억원으로 전년(2조8479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4년  
(1721억원)보다 1.1% 줄었지만 순이익  
이 1512억원으로 같은 기간 19.3% 상승  
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2조원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에 3조원을 넘어서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형성장은 유럽공장 2단계  
증설 물량의 안정적인 실적 반영이 주효  
했다. 미국의 품목관세를 비롯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판매 확대  
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신차용  
(OE) 시장에서는 30여 개 글로벌 카메이  
커를 대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  
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지역별  
최적화된 제품 전략을 통해 교체용(RE)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전경.

오는 6일 실적을 발표하는 금호타이  
어도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호  
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  
6% 증가한 4조7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5월 광주공장  
화재 영향 등으로 6.8% 감소한 5482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타이어 3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8조  
250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타이어 3사는 올해 해외 공장 증설 등  
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타  
이어는 미국 테네시 공장 및 유럽 헝가  
리공장의 증설 추진하고 넥센타이어도

체코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 공장 가동률  
을 끌어올려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대비  
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공략에 나선 가  
운데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폴란드  
에 유럽 최초 생산 공장 건설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타이어 회사들은 북  
미, 유럽 등 해외 생산을 통해 수익성 방  
어에 나설 것”이라며 “글로벌 전역에서  
제품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개인·기업 기업가정신 개선… 반기업 정서 완화

중기부·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과  
개인 56.4점서 56.6점 소폭 올라  
기업 47.7점서 51.4점 3.7점 상승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3  
년전보다 개선됐다. 반기업 정서도 다소  
완화됐다.

기업의 개선세가 더욱 눈에 띄는 가운  
데 특히 초기성장기업, 고도성장기업에  
서 기업가정신이 강한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일반 국  
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가정  
신 실태조사’를 실시해 4일 내놓은 결과  
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기업가정  
신 종합지수는 2022년 56.4점에서 2025  
년 56.6점으로 0.2점 올랐다. 항목별로는  
‘기업가적 역량’(0.4점 ↑), ‘기업가적

지향성’(0.1점 ↑)이 높아졌다. ‘기업가적  
태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에 따른 기업가정신 지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54.5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  
별로도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54점대  
수준으로 비슷했다.

2022년부터 도입한 ‘기업 인식’ 문항  
분석 결과 개인의 ‘기업에 대한 긍정 인  
식’은 상승(0.5점 ↑)했다. 반면 ‘반기업  
정서’는 소폭 감소(0.2점 ↓)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스타트업(64.3점),  
벤처기업(63.8점), 대기업(62.9점), 중소  
기업(62.2점)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  
았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  
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종합적인 기업가정신 지수는  
47.7점에서 51.4점으로 3.7점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비전과 전략(0.2점 ↑) ▲

기업가적 지향성(2.4점 ↑) ▲문화와 구  
조(2.8점 ↑) ▲운영체계(5.7점 ↑) 등 전  
반적인 영역에서 개선됐다. 특히 ‘성과’  
(9.7점 ↑)와 ‘경영환경’(8.6점 ↑)이 큰 폭  
으로 개선됐다.

이는 기업 내부의 제도·조직·운영 기  
반 전반에서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여건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 기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정신  
수준을 분석한 결과 산업분류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장 단계별로는 고도성장기업이 비교  
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  
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모든 기업에 균등  
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초기성장기업, 고  
도성장기업 중심으로 강화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김승호 기자 bada@

## 고려아연, 드론·로봇 시장 공략 본격화

복합동박 탑재 고성능 배터리 개발

고려아연이 차세대 음극집전체(배터  
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복합동박의  
상용화를 위해 태성, 네오배터리머티리  
얼즈코리아와 손을 잡았다. 드론과 휴머  
노이드 로봇 등 소형 모빌리티의 보급 확  
대로 복합동박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  
라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  
해서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8일 온산제련소  
에서 ‘드론·로봇용 복합동박 탑재 고성  
능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태성, 네오  
배터리머티리얼즈코리아와 양해각서(M  
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복합동박은 구리(동)로만 만든 일반  
동박과 비교해 구리 사용량이 적고 중심  
부를 폴리머 소재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



지난달 28일 온산제련소에서 ‘드론·로봇용 복합동박 탑재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 뛰어나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우  
면서도 밀도가 높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성능은 뛰어나지만 충전 시 팽창과  
전도성 저하 등 단점이 있는 실리콘 음  
극재의 문제점을 완화해 주는 특성도 지  
니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노란우산, 안전망 수요 타고 가입 증가

중기중앙회, 1월 신규 가입 2.5만명  
온라인가입 68.1% 늘어, 편의성 영향  
이달말까지 온라인 가입시 5만원 혜택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월 한달간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수가 2만5062명으  
로 전년동월(1만7819명) 대비 40.6% 늘  
었다고 4일 밝혔다.

가입체널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1만

2394건), 온라인(6801건), 공제상담사  
(5393건), 기타(474건)으로 집계됐다. 특  
히 온라인 가입자수는 전년 1월 실적  
(4047명) 대비 68.1%나 증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기둔화·소비  
심리 위축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안  
전망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란우산에 대  
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 편의성, 프  
로모션 제공 등으로 온라인 가입 비중 역  
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2월 말까지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  
하고 있다.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  
공인 대표가 올해 이달 28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로 가  
입하면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맛선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누리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농협맛선은  
엄선된 국내 고급 농산물 선물세트로 구  
성돼 있어 신규 가입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정수기·청정기 등 프로모션

코웨이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  
월 말까지 의료기기 신제품과 베스트셀  
러 제품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프로모  
션’을 진행한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  
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선물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및  
허가를 획득한 의료기기 제품군과 환경  
가전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렌탈  
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명절 효도 선물로 인기가 높

은 의료기기 제품군 혜택이 눈길을 끈  
다. 코웨이는 ‘비렉스 코어셋·파사지셋’  
등 의료기기 4종을 대상으로 렌탈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가정  
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인 ‘테라솔 U’  
는 신규 렌탈 시 6개월간 렌탈료 반값 할  
인 혜택을 적용해 월 1만원대의 합리적  
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수기·청정기·비데 등 주요 라인업도  
대폭 할인한다. 신제품 아이론 프로 정  
수기, 히티브 온풍 공기청정 등을 신규  
렌탈할 경우 최대 12개월 렌탈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